



**LS산전, 청주 무심천서 정화활동 펼쳐**  
 LG산전이 지역 하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LS산전은 최근 청주시 무심천에서 '맑은 우리 하천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주 중심 하천인 무심천 수질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청주대교 일원 3km 구간에 친환경유용미생물(EM) 흙공을 1000여 개 투입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LS산전



**신한은행, 18회 부부은퇴교실 진행**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제18회 부부은퇴교실'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은퇴교실은 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부부은퇴교실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 솔(SOL)을 통해 참가 신청한 100쌍의 부부를 초청해 진행됐다.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착한목소리페스티벌' 개최**  
 SC제일은행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 축제 '착한 목소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목소리페스티벌은 매년 목소리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오디오북을 제작 기부하는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SC제일은행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회복지기관 차량나눔 선정기관 발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지난달 31일 '2019 사회복지기관 차량나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사회복지기관을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차량지원과 함께 차량 등록, 탁송 비용 등 차량 인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함께 지원받는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롯데하이마트, 아동복지시설 4천만원 상당 과학교실 후원**  
 롯데하이마트는 3일 전국 10개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4000만 원 상당의 과학교실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하이마트가 전달한 후원금은 오는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10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 400여 명이 참여하는 'Hi 과학교실' 운영에 사용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롯데하이마트 하영수 마케팅본부장(왼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진일 서울남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하이마트

## 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이상현의  
 칼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 주도성장이다.

취지는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적 배경이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총 29.1%의 최저임금의 상승한 결과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하는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해도 소득감소세를 막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40만44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14.5%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5.6%늘어 63만1000원이나 근로소득 감소율이 더 커서 전체 소득은 1년전에 비해 2.5% 줄었다.

또한 1분기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74만80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0.5%감소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부터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러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이자비용이 확대된 것이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됐다.

참으로 암울한 경제지표다.

소득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자율경제의 기본구조이나 작금의 분배와 지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만 들여다봐도

중하위권에 속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하락은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2분위 자영업자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1분위의 하락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6~2017년 증가세였던 고용 없는 자영업자수는 8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전년 대비 6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임금근로자의 퇴직이 고용이 있는 창업자로, 그리고 1~2년후 경영상으로 인원을 감축 후,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 마지막으로 폐업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라 하겠다.

참으로 암담하다. 이렇수록 자영업자들에게 숨 쉴수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치권과 행정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자영업은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 우리금융, 긴급구호세트 제작비 1억 기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재난대비 1200개 사전제작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재민의 긴급 구호활동에 사용될 '우리희망 긴급구호세트' 제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산불, 지진,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긴급 구호활동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우리희망 긴급구호세트 1200개를 사전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비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우리희망 긴급구호세트는 담요, 수건, 속옷, 세면도구 등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들로 구성된다. 평상시 대한적십자사에 보관되다가 재난 발생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재민의 긴급 구호활동에 사용될 '우리희망 긴급구호세트' 제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시 신속하게 이재민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그룹 봉사단 파견 및 금융지원 등 단계별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재난지역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4월 강

원도 산불 발생 초기에 구호성금 2억 원과 구호물품을 전달했고,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와 복구를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금융지원도 실시했다. 또한,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지역 특산물 바자회도 진행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차관보 김성재
- ◆한국투자공사 ◇임명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부사장 유창호
- ◆KR투자증권 ◇신규 선임 △채권본부 채권팀 이사 김혜련 △전략영업팀 부장 이규상
- ◆동양생명 ◇팀장 승진 △정보보호팀장 류성근
- ◆코리애셋투자증권 ◇승진 △SI본부 전무 이선호 △기금금융본부 상무부 이상규 △기금금융본부 이사보 김지은 △기금금융본부 이사보 김태일 △그린에너지금융본부 이사보 한상현 △채권영업본부 부장 박서영 △법인영업본부 부장 김향아 △종합금융본부 부장 심화섭 △기금금융본부 부장 김동규 △IB본부 부장 권영욱 △기금금융본부 부장 임수홍 △SF본부 부장 김지홍 △채권영업

- 본부 부장 박혜령
- ◆한국씨티은행 ◇업무·전산그룹장 △본부장 이주현
- ◆오렌지리이프 ◇전무 선임 △재무본부장 박경원 △신채널부문장 정진욱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병기
- ◆안동대 △대학원장 김정희 △교무처장 박경봉 △학생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겸 인권센터장 겸 사회봉사지원센터장 송준협 △기획처장 김현기 △입학본부장 박기석 △기초융합교육원장 겸 교양교육부장 겸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겸 미래교육본부장 최용환 △취업창업진로본부장 겸 고시원장 겸 대학일자리센터 부센터장 태지호 △전략평가본부장 신기홍 △대의협력본부장 김병규 △도서관장 겸 정보통신원장 김성득 △박물관장 겸 역동지원원장 김종복 △생활관장 전용호 △공공실험실습관

- 육성과관리센터장 권대훈
-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임명 △회장 강효미
- ◆서울파이낸스 △산업부장 노진우 △증권부장 김호성
- ◆FETV △편집국장 최남주
- ◆글로벌이코노믹 ◇편집국장 △온라인 국장 이인수 △생활경제부장 정영일 △생활경제부 차장 황재용 △광고국 부국장 대우 김유상

### 부음

- ▲서상모씨 별세, 정재일(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씨 모친상=3일 오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5일 오전 7시, 02-3410-3151
- ▲정대영씨 별세, 정민욱(KBS 영상취재부 영상취재1팀장)씨 부친상=3일, 경남 함양제일장례식장, 발인 5일, 055-963-2000